

# 미국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차 용 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3학년  
 yung901101@naver.com

본과 3학년 여름방학, 공식적으로는 학부생마지막 방학을 보람차게 꼭 채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해 보면 수의학과에 입학한 이후로 가장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한국에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할 즈음인 2014년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5일동안, 미국이라는 땅에서 훌륭한 선배님들께 수의 임상 전반에 대한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다. 이 글에서는 감사하게만 느껴졌던 미국에서의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내가 얻어온 소중한 경험을 정리해보려 한다. 주로 반려동물 문화에 있어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좀 더 나은 항목만을 위주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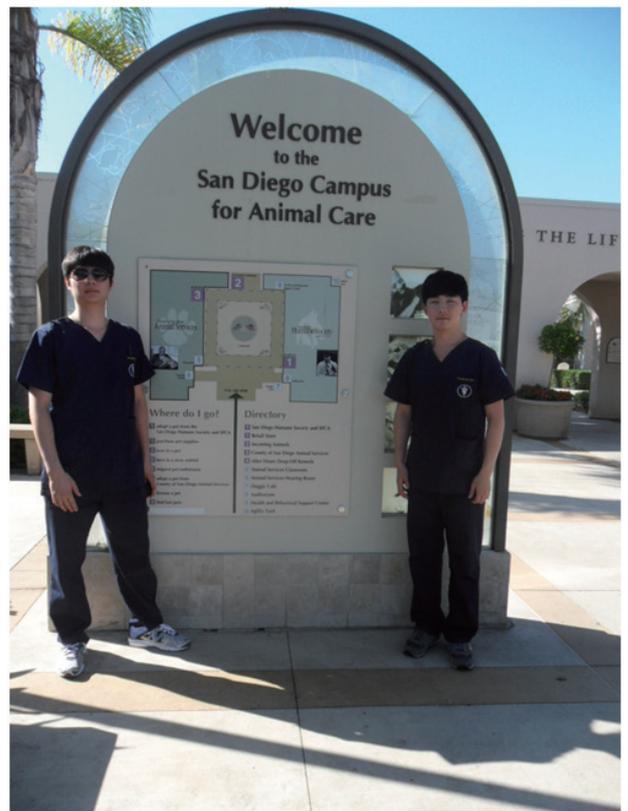
## 1. 반려 동물이 살기 좋은 사회

### 1) 삶의 한 부분인 반려동물

한국에서는 사진이나 글을 통해 보거나 여기저기서 들어보지만 했다. 미국에서는 반려 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고... 나는 혼자 막연하게 ‘반려동물을 내가 키우는 자식처럼 여기고 애정을 듬뿍뽀뽀 쏟아 부는다’ 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 보호자들을 접한 후에 어떤 개념이라기 보다는 보호자 개개인에 자리잡고 있는 일종의 신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관점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가족’ 과 ‘친구’. 그렇다면 가족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지만 친구는 미우면 남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의 하나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은 그들과 함께 느끼는 행복을 우선시하고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고치려 노력하며 몸이 아픈 경우에는 가능한 선에서 충분히 간호한다. 한편 반려동물을 친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는 내가 느끼는 행복을 우선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몸이 아프면 정을 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키워야 할 의무를 거부하게 될 수 있다.



선부르게 판단하긴 힘들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보호자 중에서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비율이 미국에서 좀 더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애뜻하게 여기지만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반려동물을 통해 얻는 행복이라는 권리와 더불어 그들을 보살필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좀 더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2) 반려동물을 위한 시스템

이렇게 격차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측면이나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수준도 무시할 수 없다. 아쉽게도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미국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좀 더 직접적인 원인들을 알게 된 것 같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체계적인 ‘분양’ 시스템이다.

샌디에고에 있는 동안 유기동물 보호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전 업무를 마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한 장소에 Animal shelter와 humane society라는 단체가 근접해 있었는데, Shelter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이고 humane society는 민간 단체였다. 두 기관은 여유가 없는 보호자들로부터 동물을 위탁 받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방문을 하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설이 정말 좋다는 것이었다. 보호소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도 보장하고, 분양을 위해 기관을 찾은 보호자들도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동물을 분양하는 단계에서 서류상으로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호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한국의 몇몇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 또한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많은 보호자들은 열악한 환경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서 분양하는 대신 가까운 ‘dog&cat shop’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Humane society 한쪽 벽면에 써있는 엄청난 수의 기부자들과 기부금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제수준도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지

날수록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동물을 위한 문화가 성숙해지는 한국을 기대해본다.



첫 주에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배님께서는운동 매니아입니다. 선배님께서 는 못하는 운동이 없으셨는데, 시간이 날 때 테니스와 골프를 가르쳐주셨 다. 처음 해보는 종목이었는데 선배님께서 잘 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나름 기분이 좋았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운동시설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았다. 또 Delmar fair에서 전형적인 축제를 즐기고 왔다. 어린 학생들이 한 마리의 동물을 사랑으로 키워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엄청 큰 차들이 묘기를 부리는가 하면 엄청 큰 바비큐 판매대들도 인상 깊었다. Balboa park에도 갔었는데 건전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 2. 수의사가 살기 좋은 사회

### 1) 수의사에 대한 인식

수의사에 대한 대중의 존경은 연수기간 내내 피부에 와 닿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배님들의 병원에서 함께 문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진단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을 거는 보호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첫 질문은 심층팔구 수의학과 학생이냐는 것인데, 우리가 맞다고 대답하면 환하게 웃으며 ‘that’s cool’, ‘good for you’ 라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 어떤 보호자는 미국에도 훌륭한 수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며, 공부가가 많이 힘들텐데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 또 한번은 밥을 먹는데 옆 자리에서 말을 걸어와 우리가 수의학과 학생이라고 밝히니 놀라워하며 한국 수의 임상에 대하여 물어보는 분도 있었다. 가장 통쾌(?)했던 기억은 마트에서 있던 일인데, 계산하는 직원이 우리가 스크럼을 입은 걸 보고 지레짐작으로 간호학과 학생이냐고 묻더니 우리가 수의학과 학생이라고 하니 놀라워하며 아무 말 하지 않던 일도 있었다.

그만큼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스크립을 입고 다닐때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게 되었던 것 같다. 저절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컸고, 내가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의사에 비해 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책에서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수의사는 존경 받을 만한 직업이다. 왜냐면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나부터 말 할 수 없는 동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되어야 수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수요와 공급

미국에는 27개의 수의과대학이 있는데, 인구 수나 국가 면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10개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약간 많다고 생각되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미국에 비해 낮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수의사는 많지만 동물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에 동물병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동물병원이 자리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미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은 만큼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매우 발달되어있다. Pet's mart 등의 큰 용품점도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사료나 약품도 미국에 본사를 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국은 반려동물의 종들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보호자들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종을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소형견 위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case가 다양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수의 임상가로서 자리잡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3. 교육시스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테크니션으로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수의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부터 무급으로 경험을 쌓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미국의 수의학과 입학 제도가 한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6년의 교육을 받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 수의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에 다시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4년을 배우는, 총 8년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교육하는 방식도 달랐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t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에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구경하고 교육방식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미국의 수의과 대학은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미 수의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교육하고 있었다. 4학년이 되면 서부터 각 과별로 로테이션을 도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1, 2학년 때는 수업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을 조 단위



둘째 주에 우릴 가르쳐주신 선배님과 model house에 방문한 것은 잠깐이나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달리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은 대부분이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과 비교하여 집값이 상당히 저렴한데도 더 쾌적하고 멋있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과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던 것 같다. 또 젊은 층과 중년 층이 많이 이용하는 shopping complex에도 방문했다. 친구끼리, 가족단위로 여기 저기 구경하면서 쇼핑하는 활기찬 모습에 나도 한껏 들떠서 기분이 좋았다.



로 나는 후 특정 case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이 주요 교육 방식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배운 지식을 실제 적용해보고 고치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미국의 이러한 group activity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 자매를 열심히 키우고 계신 선배님 덕에 일주일간 오빠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더니 친해진 이후에는 한시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나도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한시도 심심할 틈 없이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잔디밭에서 얼음탕 놀이도 하고, 함께 수영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면서 나도 잠시나마 어려지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오명집' 모임에도 데려가 주셔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다른 학과 선배님들과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의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 4. 내가 운영할 동물병원

##### 1) 수의학적 지식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많은 지식을 얻은 것은 역시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었다.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반려동물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이미 배웠고, 또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서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한 부분은, 실제 임상에서 수의사가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case와 그렇지 않은 case 어떤 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의 전문성이나 병원을 찾는 환자의 주변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물론 귀 Infection이나 치아 문제, 소화기 문제, UTI, 골절 등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는 case들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

역에서의 foxtail, 쥐가 많은 지역에서의 rat poisoning, 캠핑을 자주 다니는 가구의 이물 섭취 등 좁게는 가구별, 넓게는 지역별로 질병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값진 경험은 Emergency hospital에서 밤 늦게까지 일해본 것이다. 쉽게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응급 case들이 많이 내원했다. 특히 나이 많은 강아지가 congestive heart failure로 인해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예비 수의사로서 슬픈 것도 있었지만 나보다 몇 배는 슬플 보호자를 잘 위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내원한 case를 분석하고진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다. 특히 직접 case의 분석 자료를 보고 진단서를 써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SOAP에 따라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모든 병원에서 유사하지만, 병원마다 나름대로 체계화된 진단서의 형식이 있음을 알았다.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과 내가 배운 것을 조합하여임상에서 사용할 나만의 form을 미리미리 만들어보고 고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2)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



이번 연수에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병원 운영에 대한 여러 조언이었다. 가장 강조하신 것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때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기적인 meeting을 통해 항상 개선할 점을 찾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된 역할을 하는 수의사로서 병원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구성원을 잘 이끌어야 보호자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 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았다. 방

의 구조나 방의 배치에 따라 보호자의 만족도나 업무의 효율도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보호자와 환자가 머무는 공간은 최대한 안락하게 꾸미고 수의사가 일하는 공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원하기 전에 꼭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환자나 보호자를 대하는 마음 가짐이나 케이스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일정한 mechanism, 그리고 병원 홍보 방법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하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병원 운영에 대한 설계를 해볼 수 있었다.



남가주 수의사회 회장으로서 바쁘게 일하고 계신 선배님 덕분에 소중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날씨 좋은 일요일에 공원에서 많은 선배님들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나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본적이 없었는데 무려 메이저리그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경기를 보면서 먹는 맥주와 핫도그... 한국에서도 또 보러 가야겠다.

## 5. 자유 여행



귀국하기 바로 전에 2박 3일간 라스베가스과그랜드캐년을 여행했다. 미국이 워낙 넓은지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영화에서나 보던 화려한 밤의 도시 라스베가스와 자연의 광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랜드캐년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밤새 블랙잭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은 나의 미래에 정말 따끔한 교훈이 될 것 같다.

## 6. 마무리하며

이번 미국에서의 연수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 한국이 나쁘고 미국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려동물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다. 수의 임상 분야에서 일할 미래의 수의사로서 발전의 속도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나부터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

연수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은 훌륭한 선배님들을 많이 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부생 중 한명인 나에게 정말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응원해주는 대선배님들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었다. 선배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수의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나 자신과 약속해 본다. 🐾